

영암, 공공비축벼 건조벼 매입 시작

산물벼 마무리 단계 · 건조벼 9491톤 내달 초까지

영암군이 지난 10일 학산면 서영암농협 독전창고, 덕진면 남주농협 덕진창고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 매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영암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총 1만2279톤으로 산물벼 2788톤, 건조벼 9491톤이다.

산물벼 수매는 지난달부터 시작돼 마무리 단계고, 건조벼의 경우는 다음달 초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매입 품종은 영호진미와 새청무 2개로, 매입 직후 조곡기준 40kg 포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

최종 정산은 벼 수확기인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들이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12월 말에 확정해 이뤄진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건조벼 첫 수매 현장에서 “생산비 증가, 쌀값 불안정 등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벼를 수확한 농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안전한 수매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조벼 첫 수매 현장에는 우승회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위원장, 서영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이 함께 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불링장 운영 위 · 수탁 협약 체결

진도군 체육회 선정... 3년간 운영

진도군이 지난 10일 진도군청 상 황실에서 진도군체육회와 진도군 불링장 운영 위 · 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진도군 불링장 운영 위 · 수탁 업무협약식은 불링장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도군체육회가 선정됐다.

진도군 불링장 건립사업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군민의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불링장은 진도공설운동장 일원에 국비 11억원과 군비 24억원 등 총 35억원을 투입하고 10메인을 설치, 943.41㎡ 규모로 건립됐다.

군은 오는 12월 13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군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이후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불링장 개관을 통해 군민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겠다”며 “진도군의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홍보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목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 직무교육 등 추진

목포시가 지난 10일 목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관으로 신안비치호텔에서 202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등 12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체협활동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센터 간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아동복지 현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력 충전과 실무자들 간 업무 지식 및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미경 연합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업무에 지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소통과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향상 및 아동의 행복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완도, 올해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전라권 2위’

‘전국 25위’ 순위 대폭 상승... 먹거리 등에서 높은 점수 받아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 대상 지자체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완도군이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전라권 지자체 중 2위, 전국 25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는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온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는 각 지역의 여행 자원 매력도(일거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와 여행 환경 쾌적도(정결 · 위생, 편의시설, 교통 등) 등에

대해 평가하고,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완도군이 먹거리와 살거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총 724점(1,000점 만점)으로 전라권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다.

전국에서는 25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며, 11위에서 31위까지 점수는 큰 격차가 없었다.

신우철 군수는 “우리 완도는 청정 바다에서 자란 전복과 다시마 등 특산품이 풍부하고, 특히 전복을 활용한 회, 찜, 물회, 구이 등 먹거리가 다양하다”면서 “앞으로 해양치유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여행객들이 힐링하고 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강진, 고려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박차

학술대회 개최... 정부 차원 지원 기대

강진군이 고려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세계유산과 한국의 고려청자 연구자료집성 학술대회를 최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강진군의 장기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강진군은 고려청자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알리는 한편,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진군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문화재청 직권으로 등록된 ‘강진도요지’의 등재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청자 도시의 자부심과 위상을 걸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해왔다.

학술대회는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이다.

강진군은 14단계 로드맵 가운데 3단계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가 완료됐고 현재 매년 2~4개 유지되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 연말까지 세계유산 연구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 2024년 한국의 고려청자 원료와 산지 분석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26년 안에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14단계 장기 로드맵을 갖고 추진한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 ‘당산림 온라인 전시관’ 개설... 사진 자료 집대성

역사적 · 핵심 자연 자원 가치 재조명 기대

신안군은 그 동안 신안 당산림에 대한 사진 자료 성과를 집대성한 ‘신안군 당산림 온라인 전시관’을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산림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표현하는 마을 신앙 숲을 대표하는 생태자원으로 지역적인 자연경관을 높이고, 독특한 경관을 연출해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섬내에 원시림처럼 잘 보존돼 있는 당산림은 예로부터 주민의 신안생활 중심지로 매년 음력 선달 그림이면 풍어제를 지내기도 했다.

최근 신안군은 당제에 대한 인문학적 내용을 정리했지만 당산림 분포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자료가 없고 부분적으로는 방치되고 있다.

신안군은 당산림에 대한 당산림별 실태조사와 영상제작을 통해 적극적인 보전, 복원, 홍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흑산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역의 당산림 정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89개 당산림 분포 실태조사를 마쳤다. 또 당산림별 사진을 목록화해 신안

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https://www.shinan.go.kr/home/jaseeng/)에 온라인 전시관을 개설해 일반인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신안 당산림 소개, 흑산권역 9개 지역, 북부권역 3개 지역, 중부권역 3개 지역, 남부권역 6개 지역의 당산림 분포 현황과 당산림별 사진자료 등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당산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은 유네스코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소중한 핵심 자연자원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안·강축복 기자

해남,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드립니다

해남군은 11월 말까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5466건 1억 84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이혼납부, 국제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환급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등 관심 저조로 인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은 주민전산망을 이용 등을 통한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고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화 ·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건은 신속히 환급처리하고 11월 말까지 해당계좌를 파악해 납세자가 환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미환부 과오납금은 환부 및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부 청구권이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동안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어 미환부되는 과오납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